

## 심사위원으로서의 경험(전문의학학술지)

서울의대 기생충학교실

협의회 운영위원

홍 성 태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의뢰받으면 우선 곤혹스럽다. “이걸 언제 읽어 보고 무어라고 말하나” 하고 걱정이 앞선다. 더욱이 내용을 잘 모르는 분야의 논문을 의뢰받으면 난감할 수 밖에 없다. 심사는 편집자와 저자 모두에게 중요한 사안이므로 열심히 해야하는 큰 정신적인 부담임에 틀림없다.

기본적으로 심사는 “어떻게 하면 좋은 논문으로 수정하여 가능하면 게재되도록 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보려고 한다. 우리 나라는 저자와 심사자의 풀(poop)이 워낙 작다. 따라서 논문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만 심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지만 일단 투고된 논문은 되도록 살리고 싶은 마음이 앞선다.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을 우선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학술논문으로 기본적인 체제를 갖추었나 파악한 다음 초록을 읽어 이 논문의 기본 요지를 파악한다. 게재가능한 논문으로 판정할 경우 그 다음에 본문을 찬찬히 2회 이상 정독하면서 문맥과 학술논문으로서의 논리, 자료, 표현방법, 학술적인 주장 등을 평가하게 된다. 도저히 학술적인 논문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게재불가 판정을 내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도로 기술한다. 또한 수정을 요구할 경우 수정의견을 정리하여 심사양식을 작성하고 의견서를 만든다. 이렇게 하는 데에 일반적으로 평균 약 2주가 소요된다. 참고문헌을 보완할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된 문헌검색을 실시하기도 한다.

의뢰받은 전문 학술논문의 경우 다음의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의학논문에서는 관찰한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기술적인 논문과 가설을 검증하고 주장하는 추론적인 논문이 있다. 이들 중 기술적인 논문은 본대로 기술하여 기록하는 것 자체가 의의있는 것이므로 추론적인 논문과는 다른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유형

- 1) 국제적인 독창성이 있는 논문
- 2) 국내에서 독창성이 있는 논문
- 3) 추시적인 의미가 있는 논문
- 4) 잘 알려진 사실을 반복 기술하는 논문
- 5) 어쩔 수 없이 쓰는 논문

## 기술적인 논문의 심사결과 유형

- 1) 필요한 기술과 자료가 빠지지 않고 다 들어있어 수정이 필요없는 논문
- 2) 자료만 제시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술이 충실하지 않은 논문
- 3) 보조 자료 (그림, 사진)가 양이나 질에서 부적합 논문

## 추론적인 논문의 유형

- 1) 산뜻하게 읽어본 후에 별로 손댈 것이 없는 논문
- 2) 제시한 자료에 별 이의가 없으나 자료정리나 표현을 조금 개선하면 좋은 논문
- 3) 자료를 잘 정리하였으나 제시만으로 끝나고 논리적인 주장이 빠진 논문
- 4) 제시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논리의 근거가 부족한 논문
- 5) 실험을 더 실시해야 하는 논문
- 6) 읽고 나서 이해하기 어렵게 작성한 논문
- 7) 기본적인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논문

## 논문심사에서 흔히 느끼는 논문의 오류 또는 수정대상 사항

- 1) 같은 문구를 반복하여 기술함
- 2) 교과서적인 사실의 기술이 길게 들어있음
- 3) 실험자료만 나열하고 그 자료의 의미에 대한 고찰이나 주장이 없음
- 4) 문헌인용이 별 의미없이 많음
- 5) 필요없는 주변 사실에 대한 기술이 많음
- 6) 저자의 견해와 문헌상의 기록이 불분명함
- 7) 약어, 단위, 우리 지명의 영문기재, 투고규정 상의 각종 부호 등의 혼란
- 8) 문장 기술상의 오류

## 심사에서의 어려움

- 1) **학문과 인간관계 간의 어려움**: 논문만 학술적인 관점에서 냉정하게 보면 게재거부 또는 아주 짧게 단보형식으로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저자와의 인간관계나 학회 회원들의 불이익, 저자의 개인적인 고충 등을 감안하여 이를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약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 2) **모르는 논문의 심사**: 논문의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심사하는 경우 다른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기 어려울 때에 잘못 판정할 수 있다.
- 3) **읽기 힘든 논문**: 논문을 읽는 데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며 읽고 나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 4) **많은 수정을 요하는 논문**: 조금씩 고치다 보니 새로 쓰는 것이 더 나올 경우가 있고 실제로 너무 많이 손대는 것도 문제가 있다.
- 5) **특정 대학이나 특정인에 대한 편견**: 심사를 여러 번 하면서 은연 중에 특정인에 대한 편견이 생긴다.
- 6) **시간적인 제약**: 투고자가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또는 지난 다음에 투고하면서 발표는 빨리 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심사가 소홀해 질 우려가 있다. 논문의 심사도 간단한 창작이므로 소홀하게 할 수는 없고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도 있다.

## 요 약

실제로 심사에서 중요한 점은 결국 논문의 학술적 가치를 간파하여 게재불가능한 것인지 수정하면 게재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그대로 게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수정을 요구할 논문은 독자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수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수정의견을 잘 정리하여 저자가 기분 상하지 않게끔 잘 표현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심사자는 귀찮거나 난처하거나 기쁘거나 등 여러 가지의 기분을 느끼겠지만 성의를 갖고 잘 심사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